



산청군, 생비량면 방화지구 새들마을 준공...마을회관 신축 등

사업비 21억원 투입...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기사입력 2023.12.19 17:10:30 | 최종수정 2023.12.19 17:10:30 | 최원석 | ttlsuk@gmail.com



19일 산청 생비량면 방화지구 새들마을사업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이승화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생비량면 방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들마을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비량면 방화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와 함께 진행한 사업에서는 마을회관 및 공동작업장 신축을 비롯해 주택정비(슬레이트 지붕개량·빈집철거·집수리), 마을안길·배수로·채래식 화장실 및 노후·불량담장 정비, CCTV 및 소화전 설치,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이 이뤄졌다.

특히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민화합과 교류의 공간을 마련했다.

또 마을 중심부에 흉물로 남아있던 공동창고를 철거하고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신축해 마을환경개선과 주민편의증진에 기여했다.

군은 사업 마무리에 따라 준공식을 열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기념했다.

방화마을 마을회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이승화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관계자, 생비량면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준공시설 현장 확인 등이 진행됐다.

이재호 방화마을 추진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한 덕분에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마을경관이 개선돼 무척 기쁘다”며“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취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최원석 (ttlsuk@gmail.com)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인쇄하기